

일본 '萬葉集' 실체 국내학자들이 밝혀낸다

韓日고대사 비밀 푸는 한 열쇠... 재야 연구자들 독특한 해석 주목 끌어

“운문문학의 寶庫” “일본 上代文學의 금자탑”. 「萬葉集」은 그렇게 필설로 형용할 수 있는 극대치의 수식어를 갖고 있는 일본 最古·最高의 문학작품집이다. 지금까지도 즐겨 낭송·회자되므로 “일본인의 마음의 고향”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런만큼 일본에서의 「만엽집」 연구는 1천여 시간동안 줄기차고도 폭넓게 이루어져 왔다. 「만엽집」 연구자인 윤영수씨의 논문 「萬葉集研究史考」에 의하면 “일본 국문학의 핵심적인 연구대상”이었다. 그중에서도 훈고·주석 등 문헌학적 연구가 주종을 이뤘고, 근대 이후 그 기초 위에서 문예학·민속학적 연구 등 문학적 연구가 심도있게 수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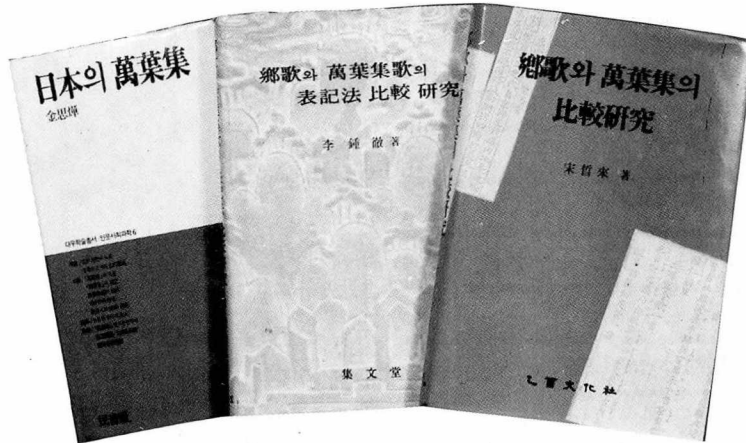
그러나 윤씨는 “「만엽집」과 중국문화와의 비교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진 데 반해, 한국어·한국문화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본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연구성과는 보잘 것 없다”고 지적한다.

1천년 역사 지닌 일본의 「만엽집」 연구

우리나라에서의 「만엽집」 연구사는 「한국 일어일문학 연구문헌 서지」(시사일본어사)를 보면 간략하게나마 추론할 수 있다. 단행본 형태로 나온 것은 93년 8월 현재 단 3종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故 김사엽교수의 「日本の萬葉集」(민음사, 1983), 김종철 교수의 「향가와 만엽집가의 표기법 비교연구」(집문당, 1983), 송석래 교수의 「향가와 만엽집의 비교연구」(을유문화사, 1991)가 그것이다.

이 저작들은 우리나라 고대의 문학·언어·민속 기타를 탐구하기 위해 일본의 「만엽집」을 연구한다. 향가는 고작 25수가 현전하는 것에 비해 「만엽집」은 4500여 수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고대에 있어서 많은 한인들이 끊임없이 일본땅에 건너가서 정권에 참여하고 문화창조에 중심적 역할”을 했으며, “그렇다면 일본의 고대가요에 있어서도 한국적 영향이 절대적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의 만엽집」의 결론의 제목은 “농후한 한국적 요소”이다. 만엽집의 표기법인 萬葉假名은 우리의 향찰 등이 일본어에 알맞게 개조된 것이라고 한다. 그 구분법은 향찰과 다를 바가 없는 동질적인 표기법이다. 따라서 1천여년 전통의 일본의 「만엽집」 연구에도 불구하고 “해독불가” 등 未詳의 부분이 많은 이유가 한국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지



「만엽집」에 내재한 고대한국문화의 영향을 찾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증적이고, 문헌에 입각한 정치한 연구물”이 되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입을 모은다.

않은 데 연유하므로 “앞으로 한국어학을 바탕으로 해독해야 정당한 해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한다.

「향가와 만엽집가의 표기법 비교연구」에서 저자는 “만엽집가가 우리 문화의 직접적인 영향하에서 형성되었으리라는 가정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이라는 ‘검손한’ 전제 아래,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한다. 첫째, 만엽집가에는 율놀이, 신라도끼, 韓衣, 韓帶, 高麗劍 등 “우리문화의 배경이 반영된 소재가 있다는 점”, 둘째, 「만엽집」의 歌人 중에는 고구려·백제·신라 사람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 저자의 추산에 의하면 총 306명 중 46명이 三國系라는 것. 이같은 전제 아래 향가와 만엽집가에 나타나는 借字 표기체제와 그 운용에 나타난 동질성을 정치한 검토 끝에 확인한다.

「향가와 만엽집의 비교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상사적 혹은 정신사적, 그 연원을 비교연구”한다. 이 책의 성과는 ‘서문’을 쓴 일본 국립국립문화연구소 나카니시 스스무(中西進) 교수에 의하면, “향가와 일본의 「만엽집」을 통해서 불교사상을 고찰하여 뛰어난 비교문화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그는 ‘가요’라고 하는 특수한 관점에서 비교문학을 시도하여 우타가키(歌垣)와 강강수월래의 연구, 또는 고려가요의 고찰을 통해서 고대가요가 공통적인 양식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리의 고대문화·언어와 밀접한 관계

그 「만엽집」이 “고대 한국어로 읊어진 한국인의 노래”이므로, “7~8세기가 한·일 고대사를 증언하는 귀중한 史料”라는 ‘과격함’ 주장

이 또다시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모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이영희씨(62)의 「노래하는 歷史」가 그것이다. “「만엽집」의 노래는 일본왕실을 장악하고 있던 백제계의 유민들이 고구려계와의 권력투쟁 끝에 패배하고 마는 과정을 그린 작품들”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올해 9월 초에 나온 김인배·김문배 형제의 「전혀 다른 향가 및 만엽집」(우리문화사)에서는 “철두철미 순수한국어로만 해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단 한 자도 일본어식 음·훈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 金氏 형제는 향가와 만엽집에 대한 기존의 해석이 “그릇된 방법론에 근거한 왜곡”이라며, 제목 그대로 “전혀 다른” 새 방법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를테면 “기존해석의 철칙인 1자1음주의 라든지 借字의 원리에 걸맞지 않게 한 시가 안에서 같은 글자를 편의에 따라 다른 소리로 해석하거나, 초·중성을 구분해 음가를 추정하는 기법 등이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틀린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따라서 “현재까지 드러난 한국어의 가장 오래된 모습인 15세기 중세어와 신라어가 잔존해 있는 경상도 방언을 추적하고 향찰을 소리값으로 보는 관점에서 破字法과 代替字 이용 등을 통해” 향가와 만엽집을 풀이한다.

그 결과 향가 「서동요」는 “善花는 밖을 얼른거리며 숨어 남몰래 오지/서방 맞아드려놓고 瞞童 살집을, /가쁜 숨 몰아쉬어 누워 당굴어 안아(情을) 풀 것이여.”라고 풀이된다. 이 같은 향가 해석법을 그대로 「만엽집」에 적용시켜 “일본의 古詩歌가 과연 고대 한국어의 향찰식 표기”임을 ‘검증’ 해내고 있다.

이들이 해독해낸 「만엽집」의 내용은 漢字를

빌어서 일본 고유어를 표기한 것으로 파악한 정통적인 해석과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들어 원문이 “足日本乃山之四付二妹待跡 吾立所沾山之四附二”이고 일천년 이상의 연구 결과 일본인들이 “山の 물방울이, 누이 기다리는 나 서서, 젖지 않는 山の 물방울에”라고 해독한 「만엽집」 권2의 107번째 노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고귀한 여성이 야마베를 죽이려 한다/그 여자에 맞서 빨리 거사를 하라 야마베를 죽이려 한다.”

“뭇기슭에 남기네 무덤 쌓아주리/(목숨) 아야 누인 곳 자취, 오고파지지/무덤 쌓아 가가우리.”(각각 현대어로 표기했을 경우)

이영희씨와 김인배 형제는 4천5백여 수의 시편 중에 불과 수십 수를 해독했을 뿐이다. 그런데 위의 시가 겹치는 이유는 일본에서는 ‘해독 불능’ 딱지를 붙여놓은 ‘枕詞’가 있는 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足日本乃’가 그것이다. 「만엽집」 중 침사는 1천78개소에 달하는데 일본인 학자들은 “뜻이 상실된 채 전해지는 말이고, 노래와는 별로 관계없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굳이 해독하지 않아도 된다”(이영희)고 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재야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만엽집」이 고대한국어의 소리값에 따른 향찰식 표기법으로 기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지로 일본어로 읽으려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김인배)한다.

재야연구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김중식 기자

책 designer
(미술·편집)

일이 좋아 일을 하는
젊은이로서
匠人의식을 갖고
출판문화의
새 싹을 틔우고자 하는
이는 연락바랍니다.

우편번호 110-611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132호
(李孝童 앞)